

# 무등산 산행하며 연극 관람 어때요?

광주 동구·10년후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장소특정형 연극  
의제미술관 일원 '시간의 숲, 無等'  
허백련·최홍중·최원순 삶 등 조명

삼에 사상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일군 '의제 허백련', 나병 환자의 외침에 귀 기울였던 '오방 최홍중' 그리고 조국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석아 최원순'. 세 사람은 광주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무등산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 8일 도슨트 투어·장소특정형 연극 '시간의 숲, 無等' 현장. 참가자 20여 명 시민들은 저마다 들뜬 모습으로 산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동구와 10년후 그라운드가 지난 5월부터 총 12회 의제미술관 일원에서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도슨트 투어에 이어 인문산책길 '무등가는 길'의 주요 스폿을 이동하며 장소특정형 연극(이동극)을 즐기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등·하산 과정에서 각각 다른 경험을 마주한다. 중심사 주차장에서 시작한 상행 코스는 문빈정사, 증심교, 춘설현 등 의제·오방·석아의 숨결이 깃든 명소를 둘러보는 순서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김명여 문화해설사와 함께 산을 오르며 세 인물에 얽힌 비화를 들었다. 증심교 앞에서는 의제가 단돈 20원을 들고 일본에 유학을 가고 군부투했던 이야기, 경찰서 유치장에서 숙박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오방이 나병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진행했던 구라(救癩) 행진도 흥미로웠다. 이의 신림마을 표지석이나 농업학교 학생들과 차를 제작했던 물레방아 공간도 볼 수 있었다.

"마음을 갈고 뒤아서 우리 산수를 비추는 그림/그린 그림을 그리고 싶소/내가 조선을 그린 수만 있다면.."

의제미술관에 도착해 춘설차를 즐기던 사이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호남지역 최초의 여의사 헌덕신으로 분장한 유평시어터 소속 김슬지 배우의 독창이다. 김 씨는 이날 공연의 스토리텔러 역할을 맡아 관객을 춘설현, 문향정 등으로



춘설현 앞에서 펼쳐진 '시간의 숲, 無等' 클라이막스 장면. 왼쪽부터 이명덕, 김슬지, 최진영, 배광희 배우.

이끌었다.

정년기 의제 허백련의 모습을 한 이명덕 배우도 미술관 복도를 가로질러 천지인(삼애) 사상과 공동체정신을 투영한 노래를 불렀다. 밖이 내다 보이는 미술관 유리 벽면은 무등산 가을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자연이 그린 여섯 폭병풍 같았다.

"1935년 3월 17일 이후, 나 최홍중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가정에 대하여 오만한 자, 사회에 대하여 방일자, 사업에 대하여 방종한 자. 종교에 대하여 방랑자로..."

이어 스토리텔러 안내에 따라 밖으로 나선 관객들은 돌계단 위에 서 있는 오방 최홍중(배광희 분)을 마주한다. 그는 자연이라는 가설 무대를 활용해 자연스럽고 진중한 연기를 펼쳤다.

1935년 최홍중은 자신의 아호를 오방(五放)이라 정하고 주위 지인들에게 사방 통고서를 돌렸다. '오방'이란 다섯 가지의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의미로 '사회적 체면', '집안의 일', '경제적 이

익', '정치적 활동' 및 '종교적 활동'을 의미한다. 배광희 배우는 이처럼 세상 만사에 초연하고자 했던 오방의 일화를 비롯해 김구의 암살 소식을 듣고 통곡했던 장면 등을 열연했다.

무대가 된 문향정은 의제가 춘설차를 보급하기 위해 세운 공간이다. 조금 더 깊은 공간에는 관공대와 삼애대원, 의제 소묘 등이 자리해 향후 예술 콘텐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1956년 남농 김용구의 설계로 지어진 춘설현에서 막을 내렸다. 이 공간은 독립운동가 석아 최원순이 자신의 호를 따서 '석아정'이란 현판을 붙였으나 최홍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오방정'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춘설현에 도착하자 석아역을 맡은 최진영 배우는 관객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있는 주식'이 무엇인지 물었다. 물론 이 또한 극의 일부, 당시 조선의 독립운동가에게 주식은 암호였다고 한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박진연의 문화카페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에서 가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한 책방이 있다. 바로 '워드 온 더 워터'(Word on the Water)이다. '물위의 서점'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난 2011년 도심에 가로 지르는 리젠트 운하에 감쪽 등장했다.

매일 낮 12시에 문을 여는 '워드 온 더 워터'는 영국 옥스포드대 출신의 패디 스크리치와 조나단 프리벳 등 독서광인 세 친구가 평생의 업으로 삼기 위해 낚고 오래된 15m 길이의 바지(Barge) 선을 꾸민 곳이다. 자신들이 읽었던 헌책들을 매대에 내놓은 데다 직접 망치를 들고 배를 수리한 덕분에 큰 돈은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신경 쓴 '공사'는 지붕 위 스테이지. 지역의 유

2015년 운하관리회사는 결국 워드 온 더 워터의 영구 정박을 허가했다. 자칫 추역속으로 사라질 뻔한 서점이 시민들의 응원으로 런던의 아이코닉이 된 것이다.

며칠 전, 문득 워드 온 더 워터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지난 9월 28일자로 대전의 향토서점 '계룡문고'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9년 만에 폐업했다는 뉴스를 접해서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니 다행히도 책방은 여전히 성업중이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6년 전 취재 차 기자와 만났던 조나단 프리벳이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자고 나면 문을 닫는' 책방이 많은 데, 코로나19를 거쳐 고물가로 악명 높은

## 광주의 '워드 온 더 워터'를 꿈꾸며

지선이나 버스커들의 공연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고가의 마이크와 음향 시설을 갖춰야 했다.

2011년 5월, 역사적인 '출항'에 나선 '워드 온 더 워터'는 단박에 런던인들의 문화쉼터가 됐다. 하지만 14km에 이르는 리젠트 운하를 운행하며 영업한 워드 온 더 워터는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모든 선박들은 2주 마다 정박지를 이동해야 한다는 런던의 운하법에 따라 자주 옮기다 보니 매번 서점의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2년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자 책방지기들은 런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 2개월간 무단 정박을 감행했다. 이에 발간한 리젠트운하 관리회사가 막대한 벌금과 즉각 철거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폐점 위기에 몰렸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된 런던 시민들과 '셀럽'들은 SNS 등을 통해 서점구하기에 나섰다, 지난

런던에서 13년간 '버터내고' 있는 게 부러웠다.

책 읽어주는 서점으로 유명한 '계룡문고' 폐업에 마음이 쓰인 건 광주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서점(1996년 폐업)과 삼복서점(2008년)이 떠올라 웬지 남의 일 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다. 무엇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국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던 터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동네책방은 단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 서점은 한 도시, 한 나라의 문화 최전선이다. 동네 책방이 하나 둘씩 늘어날 수록 세상은 그만큼 진화하기 때문이다. 한강이 3평 남짓의 독립서점 '책방 오늘'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으리라. 또췌록 '한강 신드롬'이 책 읽는 문화, 나아가 동네책방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 "2024년을 빛낸 책은?"

예스24, 29일까지 투표... 다음달 8일까지 필사 챌린지

예스24가 '2024 올해의 책' 투표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출간된 도서들 중, '오늘의 책'에 선정된 적이 있거나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도서 등 예스24 PD들의 추천을 거친 240종이 후보로 선정됐다.

투표는 1인당 최소 3권부터 최대 6권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투표에 참여한 회원 전원에게 YES상품권 1000원과 크레마클럽 30일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스24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보너스 도장 미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투표한

책을 응원하는 '응원 댓글 작성' 미션, '실시간 독 표현환 확인' 미션, '올해의 책 사막 독서 챌린지'를 확인하는 미션 등이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각 미션에 참여할 때마다 YES상품권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필사하는 '올해의 책 사막 독서 챌린지'는 오는 12월 8일까지 약 한 달 간 예스24 독서 커뮤니티 '사막'에서 열린다. 이벤트 기간 내 10일 필사를 완수한 회원에게는 YES상품권 1000 원을, 필사 후 리뷰까지 작성한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해 YES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려시대 관청 추정 건물지·유물 발견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나주 복암리 유적 발굴조사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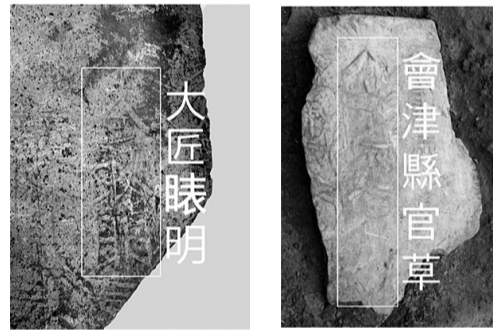
나주 복암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관청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유물이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유은식)는 최근 복암리 유적 10차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관청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다량의 기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주문화유산연구소 정대홍 담당 연구사에 따르면 "2024년 때 하반기 조사 진행했다.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건물 주변에서 명문 기와 등이 확인됐다"며 "회진현 관초(會津縣官草) 명의 고려

기과가 출토됐다. 회진현은 고려시대 다시현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이며 관초는 관아에서 썼던 기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표명' 명의 기와도 다량 출토됐다. 정 연구사는 "대장은 장인을 뜻한다. '대장표명'은 대장 검수품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발굴지는 고려시대 회진현의 관청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사에 따르면 건물지 주변은 논밭으로, 유물은 논밭 한가운데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기원후 1,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환구가 발굴



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근동이 오랜 시간 당시 생활하던 이들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 발굴 현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